

구례 국공장 확장공사 산림 훼손 논란

부서간 법령 협의 안된 채 진행
공무원 3명 고발 당해
주민·환경단체 원상복구 요구
군, 주민과 대화 통해 해결책 모색



국공장 확장을 위한 구례읍 봉성산 봉덕정 활터 정비공사가 산림훼손과 산사태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국공장을 확장한다며 구례 봉성산을 훼손한 것과 관련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이 안전조치 등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19억여원을 들여 구례읍 봉성산 봉덕정 활터 정비공사를 진행했지만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군청 내 부서간 소통 부재로 관계법령 협의가 안된 채 공사를 진행해 불법 논란으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조직 내 불협화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전국국도대회 유치와 함께 봉성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봉덕정 활터의 3개 과녁과 사대(활쏘는 장소)를 4개로 늘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 산지를 절개해 부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 공사는 3800㎡의 현 부지에 접한 산지 1500㎡(454평)를 넓혀 전체 활터 부지 5300㎡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산지 절개지에 높이 6m 길이 205m의 옹벽을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산림훼손 등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봉

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호·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법을 단속해야 할 구례군청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산림훼손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책위와 구례군 의회,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훼손된 봉성산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꾸려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구례군 관계자는 "허가부서와 사업부서간 관계법령 협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처리된 것으로 착각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결국 불법이 됐다"며 "현재는 잘못된 점을 모두 보완했고,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인 A건설업체 현장 대리인 현장소장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서 대로 안전하게 시공했다며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로컬푸드 매출 140억·3만명 목표

인센티브·이벤트·홍보 강화

순천시가 올해 로컬푸드 매출액 140억원, 소비자회원 3만명 달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활성화에 나선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민과 농민이 함께 주주로 참여해 2016년 1호 직매장인 국가정원점을 개장한 이후 2018년 2호 호수공원점, 지난해 3호 신대점을 개장했다.
매출도 2020년 96억원에서 지난해 115억원으로 1년 사이 20%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매출액의 86%가 생산농가로 환원돼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소비자 회원 3만명 목표달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회원가입 인센티브, 특판전 및 이벤트 확대, 소비자 팸투어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고정 소비자를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경영 내실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생산자 및 출하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순천시 신청사에 4호점도 개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직영점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로컬푸드를 통해 도농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영세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K-water 주암댐지사, 교육 기자재 전달



K-water 주암댐지사가 최근 송광초등학교에 원격수업과 스마트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전달했다. (사진) 송광초등학교는 순천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벽지 학교로, 주암댐으로 인한 수몰지역에 있어 K-water 주암댐지사서 매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박명기 K-water 주암댐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송광초 학생들이 너무 기뻐해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사후활용 방안 '관심'

내년 2월 3년 임대 종료
"섬박람회 연계 등 활용 검토"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후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돌산읍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 조성된 영화세트장의 사후 활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빅스톤픽처스는 지난 2020년 7월 돌산읍 진모지구 6만㎡부지에 영화 세트장 건립을 시작했다.
빅스톤픽처스는 2020년 10월 영화 '한산'의 촬영을 마친 데 이어, '노랑'도 지난해 6월에 촬영을 끝내고 개봉 준비를 마쳤다.
두 영화는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졌으나 올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드라마 '칠년전쟁'이 촬영될 예정이다.
빅스톤픽처스는 2020년 4월 여수시와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으며, 3년간 유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영화사 측은 2020년 여수시에 임대료로 1억 7000만원을 납부했으며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을 냈다.
여수시는 내년 2월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영화 세트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용역 조사를 의뢰해 영화세트장에 남아있는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영화세트장에는 진남관을 비롯해 거북선, 판옥선 등 영화 세트가 남아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영화 세트장이 대부분 목조건

물인 만큼 유지 보수나 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시군 영화세트장 운영 실태나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추진 등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세열급

"고흥지역 농축산물 판촉·소비촉진에 매진"

김태훈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에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고흥군민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포두면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 광덕고와 조선대를 졸업하고 함평군 농정지원단장과 농협중앙회 전남회원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항상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에 취임한 김태훈(55)지부장은 "첫 근무지인 고흥군지부에서 지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고흥군 및 유관기관, 관내 농·축협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흥지역 농축산물 판촉·소비촉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